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이용 동기, 또래관계 및 정서적 요인과의 관계

박 지 영 김 귀 애 홍 창 회[†]

김원묵기념 봉생병원 임상심리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휴대전화 이용 동기, 또래관계, 외로움, 우울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 소재 중·고등학생 705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먼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 간 관련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위험 집단이 저위험 집단에 비해 휴대전화 이용 동기, 외로움, 우울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관계 변인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고위험 집단에서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은 무료함 해소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외로움과 우울이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한다고 가정하는 두 가지 이중매개모형과 다른 대안모형들을 설정한 후, 경로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모형을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 외로움과 우울이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완전 매개한다고 가정한 완전이중매개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휴대전화 이용 동기, 또래관계, 외로움, 우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창회 /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Tel : 051-510-2144 / E-mail : hch2144@yahoo.co.kr

휴대전화는 이제 현대인의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2010)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수는 2006년에는 4,020만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4,961만명으로 인구대비 보급률 10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휴대전화 이용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휴대전화의 이동성, 휴대성 등과 같은 매체적 특성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음악감상, DMB 시청, 사진촬영, 무선인터넷, 전자사전 등 디지털 기기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전화의 다양한 오락매체적 기능들은 자극 추구적이고 새로운 문화를 선호하는 현대 청소년들의 특성과 결부되면서 최근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이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휴대전화의 매체적 특성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가 잘 부합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중독증후군(국립국어원 신조어 자료집, 2004)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신병리적인 문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이나 초조함, 벨소리가 울리는 것과 같은 금단현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한주리, 허경호, 2004), 휴대전화 사용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주관적 감각인 통제상실을 야기하기도 한다(박웅기, 2003). 둘째, 학업 상의 부적응 문제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공부에 방해가 되고 집중에 어려움이 있으며(서희순, 2003), 사고의 단순화 및 글쓰기 능력도 퇴화되고 있다(강희양, 손정락, 2009). 셋째, 휴대전화 전자파 과다 노출로 인한 두통, 호르몬 분비 이상, 뇌세포 손상(강원일보,

「아이와 휴대폰 규칙 만들자」, 2006년 5월 24일 참조)과 문자메시지 과다사용으로 인한 혈액순환장애와 어깨 및 손목통증과 같은 건강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헤럴드경제, 「우리도 청소년 교내 휴대폰 금지를」, 2010년 4월 2일 참조). 넷째, 경제적인 문제로, 무절제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고액의 사용요금을 청구 받아, 범죄에 연루되거나(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자살을 한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TN뉴스, 「휴대폰 요금 370만원, 10대 자살」, 2006년 2월 16일 참조). 이처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원인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여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도모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건강증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정신의학에서의 중독(addiction)이란 주로 약물중독을 의미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정행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충동조절의 문제도 중독으로 확대하여 행동중독(behavioral addic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Marks, 1990). 이 때의 중독이란 자주 반복한다거나 조절하기 어렵다거나 생활의 균형을 깨뜨릴 정도로 과도하게 빠져 있다는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김교현, 2002). 이러한 행동중독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유형으로 변형되어 현대에는 TV, 인터넷, 전화 등 기술중독(technological addiction)으로 확장되었다(조일주, 2009). 또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화 역시 중독의 범주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Suler, 1996), 휴대전화 사용에

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도 중독적 증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 중독(cellular phone addiction)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정신의학 및 심리학적 측면에서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개념적 정의도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중독이라는 병리적인 개념을 사용하기보다는 현재 대부분의 선행연구(박순천, 백경임, 2004; 장은순, 2006; 장혜진, 2002)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이란 휴대전화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생활장애), 휴대전화 사용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며(강박), 휴대전화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해야 만족하거나(내성),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 불안을 경험하는 상태(금단)를 말한다.

휴대전화 이용 동기 자체는 실제 사용정도 및 이용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휴대전화 사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이인희, 2001). 이는 휴대전화 이용 동기가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휴대전화 이용 동기 중에서 중독적 사용으로 이끄는 차별적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휴대전화 이용 동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편의적 동기, 커뮤니케이션 동기, 오락적 동기, 과시동조적 동기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편의적 동기는 시간을 관리하고 정보나 조언을 얻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휴대전화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스케줄링 역할을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매체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이인희, 2001).

둘째, 커뮤니케이션적 동기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휴대전화는 이에 잘 부합되는 개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라고 볼 수 있다(Katz & Aakhus, 2002). 특히 휴대전화는 자신만의 커뮤니케이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매체이다(Gillard, Wale & Bow, 1998). 즉, 휴대전화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며 물리적 거리감을 없애주고 심리적 친밀감을 높여준다(장은순, 2006). 따라서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부모, 친구 등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간의 유대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셋째, 오락적 동기란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무료한 시간을 보내거나 흥미를 느끼며 기분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거나 게임, 카메라, 인터넷 기능 등을 통해 오락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휴대전화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결합되면서 청소년들의 오락적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용이해졌다(이정기, 황상재, 2009). 즉, 청소년들은 학업부담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낄 기회가 많지 않아 디지털 기기처럼 편하고 쉽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매체에 빠질 수 밖에 없다(이형초, 2009). 실제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오락적 동기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할수록 휴대전화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승수, 오경수, 2006).

넷째, 과시동조적 동기란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함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더 세련되게 보이려고 하며(이인희, 2001), 다른 사람들과 동조 의식을 느끼고자 함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은 또래들의 수용과 인정을 강하게 원하며 친구나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의 평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친구의 행동과 가치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Brown, Clasen & Eicher, 1996),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과시함으로써 또래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또래들에게 과시하거나 또래집단에 동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청소년들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욕구 역시 높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휴대전화는 청소년들에게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에 또래집단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윤두연, 2005). 따라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이용 동기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에 대해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체 이용과 대인관계에 관한 주장들을 살펴보면, 학자마다 상반된 견해들을 보이고 있다. 먼저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가 있지만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여 타인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상호작용 욕구를 보완한다는 것이다(Mesch, 2001; Peter & Valkenburg, 2003). 반면에 오프라인에서 대인관계 상호작용이 활발한 사람이 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상호작용을 수행함으로써 대인관계가 더 강화된다는

것이다(Kraut et al., 2002; Rettie, 2008).

이처럼 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체 중 하나인 휴대전화의 사용과 또래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인간관계의 범위가 좁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 유지를 위해 전화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배진한, 2002).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면 외톨이 성향과 도피적 오락추구 성향을 보이게 된다(김주환, 진보래, 2004). 또한 청소년들에게 문자메시지가 많이 온다는 것은 또래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개인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매체는 실질적인 교우관계에서 찾을 수 없는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Conway & Rubin, 1991). 반면에 친구수가 많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일수록 휴대전화 중독적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해경, 2006). 또한 사교성/쾌활 대인관계 차원이 강박적 중독성향과 가장 상관이 높고, 온화/친절 대인관계 차원이 생활 장애적 중독성향과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승수, 오경수, 2006).

이와 같이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연구에 사용된 휴대전화 중독 척도 상의 문제일 수 있다. 한승수와 오경수(2006)는 자신의 연구에 사용된 휴대전화 중독 척도가 인터넷에 적용된 중독 문항을 변형한 것이기에 휴대전화라는 매체의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 비해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강희양, 손정락, 2009) 이동성과 즉시성이라는 휴대전화의 특성이 척도에 충분히 반

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척도에 중독의 중요한 구성개념인 내성과 금단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제외되어 있어, 진정한 의미의 청소년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을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 연구에서 말하는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이 실제로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또래관계가 원만한 청소년들은 그만큼 연락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사용빈도는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독적 사용이란 단순히 사용빈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이 사용빈도는 높지 않더라도 내성이나 금단과 같은 중독적 특성을 보일 것이라 짐작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척도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또래관계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매개과정을 통해서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를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를 밝힘으로써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인관계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는 주요 정서인 외로움과 우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여러 임상 및 이론가들은 또래관계와 가장 관련이 높은 부정적인 정서로 외로움을 꼽고 있다. 또래로부터의 거부와 고립감의 수반과 함께 필연적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직면하게 만든다(Brennan, 1982). 실제로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은 많은 고독감을 경험하고 있으며(Asher & Wheeler, 1985), 청소년의 외로움을 예측하는

변인 중 또래관계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Uruk & Demir, 2003). 또한 외로운 사람들은 지지적인 사회관계가 부족하고 내향적인 경향을 갖기 때문에 중독의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Sadava & Thompson, 1986), 특히 휴대전화는 인간의 외로움을 보상해주는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할 수 있다(Fischer, 1992).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외로운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에 중독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 짐작가능하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은 우울이라는 정서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윤희 외, 2008). 우울은 매체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Young & Rogers, 1998), 다양한 매체 중 휴대전화도 우울함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어, 우울한 청소년들은 휴대전화 중독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송은주, 2006). 실제 휴대전화 사용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함과 근심거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Ha, Chin, Park, Ryu & Yu, 2008). 한편 외로움은 우울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utasalo et al., 2006).

상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간의 관계에서 외로움과 우울이 순차적으로 매개한다고 가정는 매개모형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는 또래관계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관련이 높은 지표인 휴대전화 이용 동기, 또래관계, 외로움, 우울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

리고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 간 관련변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고위험 집단에서 중독적 사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또래관계와 중독적 사용과의 관계에 있어 외로움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반영하는 두 가지 매개모형을 수립하였다. 첫째, 또래관계와 중독적 사용간의 관계를 외로움과 우울이 순차적으로 완전매개한다고 가정하는 완전이중매개모형, 둘째, 중독적 사용에 대한 또래관계의 직접효과와 외로움 및 우울의 순차적인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 모두를 가정하는 부분이중매개모형이다. 이에 대한 대안모형으로는 또래관계와 중독적 사용간의 관계에 대해 외로움과 우울의 각 변인이 각각 완전매개, 부분매개한다고 가정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매개모형과 대안모형 즉, 네 모형을 비교 검증하여 어떤 모형이 가장 적합한지를 확인함으로써 또래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야기된 부정적 정서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부산시 소재의 중학교 2, 3학년과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7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 중 남학생은 354명(50.2%), 여학생은 351명(49.8%)이었고, 고등학생은 409명(58.0%),

중학생은 296명(42%)이었다.

측정도구

청소년 휴대폰 중독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강희양과 손정락(2009)이 개발한 청소년 휴대폰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휴대전화 중독 척도는 대부분 Young(1996)의 인터넷 중독척도를 변안하여 수정한 것이거나(임애라, 2008; 장혜진, 2002)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인 K척도의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한주리 외, 2004). 그러나 다양한 매체 중독에 대한 연구(방송위원회, 2005)에서 인터넷 중독과 휴대전화 중독과는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고, 환경이 다른 외국의 연구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척도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형초, 2002). 이에 강희양과 손정락(2009)은 실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 중독을 변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문항들을 직접 적어서 제출하게 한 후 전문가 2인의 도움을 받아 안면타당도를 구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요인을 기존의 중독 측정치의 요인들과 비교하여 구성 개념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최종 선정된 문항은 총 32문항으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당 문항수와 예시문항은 다음과 같다: 내성과 금단(16문항,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전화 또는 문자가 왔는지를 확인한다’), 생활장애(6문항, ‘휴대폰 이용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에 소홀해지고 성적이 떨어졌다’), 강박증상(5문항, ‘휴대폰에 오랜 시간 매달려 있는 것을 그만두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병적몰입(5문항, ‘밤새

휴대폰으로 통화나 문자를 하느라 잠을 못 잔 적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를 중독적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 강희양과 손정락(2009)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alpha는 .79에서 .89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5이었다.

휴대전화 이용 동기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이인희(2001)가 제작한 휴대전화 이용 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화 및 휴대전화 이용 동기 선행연구(Leung & Wei, 2000; O'Keefe & Sulanowski, 1995)에서 탐색된 이용 동기와 나은영(2001)이 제시한 한국 문화적 특성(과시, 체면, 동조)을 고려하여 구성된 것이다. 이인희(2001)의 연구에서는 총 40문항을 요인들간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이라고 간주하는 직각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하여 11개의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주성분으로만 구성된 변량의 경우가 흔치 않고(윤재영, 2005) 서로 다른 요인이 완전히 독립적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강효성,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들간 상관관계를 가정하는 사각회전방식을 사용하여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인 문항만 척도에 포함시키고(Devellis, 1991), 하나의 문항이 두 요인 모두에 .30이상의 부하량을 갖거나 표적 요인과 비표적 요인 간 부하량의 차이가 .10미만인 경우는 교차 부하(cross loading)되었다고 간주하여 그 문항은 제거한 결과, 31개 문항이 최종 척도에 포함되었다. 이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

석을 재차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동기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부록1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11문항)은 자신을 더 세련되게 보이고자 하거나 과시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과시적 동기'로, 두 번째 요인(5문항)은 타인과 즉각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어 '즉시연락 동기'로, 세 번째 요인(10문항)은 정보나 조언을 얻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어 '정보습득 동기'로, 네 번째 요인(5문항)은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흥미를 느끼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무료함 해소 동기'라고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alpha는 다음과 같다: 과시적 동기 .90, 즉시연락 동기 .83, 정보습득 동기 .86, 무료함 해소 동기 .75.

또래관계의 질

또래집단 내에서의 친구의 수를 나타내는 또래수용성은 또래관계의 양적인 측면만 측정할 수 있는 반면(정복자, 2009), 또래관계의 질은 다차원적인 것으로 또래관계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이은해, 고운주,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진경(2002)이 제작한 또래관계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긍정적인 요인(20문항)과 부정적인 요인(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의 양상이 수평적이며 또래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주연(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외로움

청소년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Russell, Peplau와 Cutrona(1980)가 제작한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박선영과 도현심(1998)이 청소년에 맞게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 문항으로 친밀한 타인 부족(11문항), 사회적 타인 부족(5문항), 소속감 부족(4문항)이라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옥수, 1997). 각 문항은 1-4점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선영과 도현심(1998)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0이었고, 김옥수(1997) 연구에서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우울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역학연구용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CES-D는 Radloff(1977)가 지역사회 일반인의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경자와 김은정(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실시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우울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 및 행동둔화(7문항), 대인관계(2문항)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3점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지연과 오경자(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연구절차

자료분석은 SPSS 14.0과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시하였다. 먼저 상관분석을 통하여 휴대전화 중독적 사

용과 휴대전화 이용 동기, 또래관계 및 정서적 요인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휴대전화 중독 척도의 상위 25%를 고위험 집단, 하위 25%를 저위험 집단으로 분류한 후,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하여 두 집단 간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의 차이를 확인해보았으며,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고위험 집단에서 중독적 사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또래관계와 중독적 사용과의 관계에 있어 외로움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인 것으로 간주하며, RMSEA는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10보다 크면 바람직하지 않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해 카이제곱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모형들 간에 자유도의 변화에 따른 카이제곱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평가해 간명성을 고려하여 모형을 비교하는 것이다.

결 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휴대전화

표 1.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휴대전화 이용 동기, 또래관계 및 정서적 변인과의 상관 (N=705)

	과시적 동기	즉시연락 동기	정보습득 동기	무료함 해소동기	또래 관계	외로움	우울	중독적 사용
과시적 동기	-							
즉시연락 동기	.53***	-						
정보습득 동기	.63***	.19***	-					
무료함 해소 동기	.57***	.58***	.45***	-				
또래관계	.07*	-.17***	.26***	-.05	-			
외로움	.03	.15***	-.18***	.13***	-.69***	-		
우울	.14***	.15***	.03	.23***	-.32***	.55***	-	
중독적 사용	.43***	.27***	.32***	.57***	-.19***	.30***	.42***	-

* $p < .05$, *** $p < .001$

이용 동기, 또래관계 및 정서적 변인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휴대전화 이용 동기 하위요인들은 모두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무료함 해소 동기($r = .57, p < .001$)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한편 또래관계는 보다 낮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 = -.19, p < .001$), 외로움($r = .30, p < .001$)과 우울($r = .42, p < .001$)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 간 관련변인들의 차이

전체 연구대상자들(705명) 중 휴대전화 중독척도의 상위 25%에 해당되는 고위험 집단은 176명이었고 하위 25%에 해당되는 저위험 집단은 180명이었다. 두 집단 간 중독적 사용 정도와 휴대전화이용 동기, 또래관계 및 정서

적 변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위험 집단이 저위험 집단에 비해 휴대전화 이용 동기, 외로움, 우울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관계 변인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이용 동기와 대인관계 및 정서적 요인이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을 얼마나 잘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을 종속변인으로, 이용 동기 하위요인과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외로움, 우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분석결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무료함 해소 동기였고($F(1, 174) = 19.20, p < .001$), 설명변량은 9.9%였다. 우울을 추가할

표 2.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의 관련변인들의 평균(표준편차)

	고위험 집단($n=176$)	저위험 집단($n=180$)	t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89.03(17.61)	40.09(4.70)	35.65***
내성금단	46.90(9.22)	20.42(3.12)	36.11***
생활장애	14.78(4.90)	6.99(1.36)	20.35***
강박증상	14.76(3.46)	6.92(1.72)	26.97***
병적몰입	12.60(3.84)	5.76(0.88)	23.02***
휴대전화 이용동기	120.47(20.99)	92.43(22.24)	12.23***
과시적 동기	23.00(8.40)	15.37(5.20)	10.27***
즉시연락 동기	20.86(3.46)	18.23(4.48)	6.18***
정보습득 동기	28.28(7.32)	21.79(7.77)	8.11***
무료함 해소 동기	16.09(3.51)	9.38(3.51)	18.04***
또래관계	141.92(19.33)	153.20(16.73)	-5.89***
외로움	38.43(9.28)	30.48(6.97)	9.11***
친밀한 타인부족	21.80(5.99)	16.17(4.22)	10.23***
사회적 타인부족	8.82(2.87)	7.26(2.41)	5.55***
소속감 부족	7.81(1.98)	7.06(2.15)	3.46***
우울	26.21(10.08)	14.29(9.98)	11.21***
우울감정	8.69(4.77)	3.73(3.96)	10.66***
긍정적 감정	6.68(2.49)	7.48(2.97)	-2.76**
신체 및 행동 둔화	10.00(3.93)	5.44(4.22)	10.55***
대인관계	2.27(1.74)	0.68(1.09)	10.32***

** $p<.01$, *** $p<.001$ (양방검증)

표 3.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N=176)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β	t	R^2	ΔR^2	F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1	무료함 해소 동기	.315	4.38***	.099		19.20***
	2	무료함 해소 동기	.300	4.29***	.159	.060	16.36***
		우울	.245	3.51***			
	3	무료함 해소 동기	.250	3.51***	.192	.033	13.64***
		우울	.233	3.39***			
		과시적 동기	.189	2.66**			

** $p<.01$, *** $p<.001$

표 4.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대한 여러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 비교

		X^2	df	p	TLI	CFI	RMSEA
완전이중매개모형	그림1	12.08	3	.01	.98	.99	.07
부분이중매개모형	그림2	9.07	2	.01	.97	.99	.07
대안모형1 (완전매개모형)	그림3	178.94	2	.00	.37	.79	.35
대안모형2 (부분매개모형)	그림4	178.92	1	.00	-.27	.79	.50

경우 이 두 변인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변량의 15.9%를 설명하였다($F(2, 173)=16.36, p<.001$). 마지막으로 과시적 동기를 추가할 경우 세 변인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변량의 19.2%를 설명하였다($F(3, 172)=13.64, p<.001$).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의 관계에 대한 경로모형 검증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한 두 매개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되었듯이,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간의 관계에 대해 외로움과 우울이 각각 완전매개, 부분매개한다고 가정하는 대안

모형 1, 2(그림 3, 4) 모두 RMSEA, TLI, CFI 지수를 고려했을 때, 수용할만한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반면,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간의 관계를 외로움과 우울이 순차적으로 완전매개한다고 가정하는 완전이중매개모형(그림 1)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대한 또래관계의 직접효과와 외로움 및 우울의 순차적인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 모두를 가정하는 부분이중매개모형(그림 2)은 모두 적합하게 나타났다. 이에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자승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차이검증 결과, 두 매개모형의 자유도 차이가 1일 때(3-2), 카이자승의 차이가 3.01로 .05수준에서의 임계치 3.84보다 작았으므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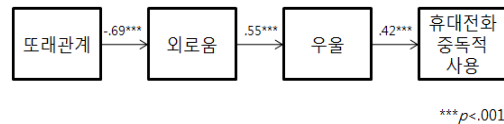


그림 1.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대한 완전이중매개모형과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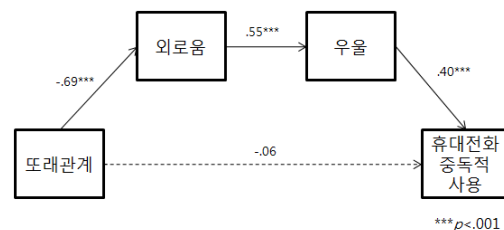


그림 2.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대한 부분이중매개모형과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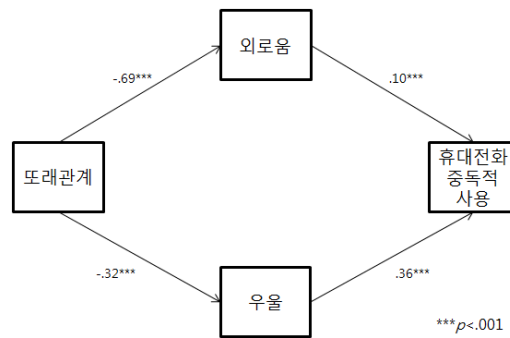


그림 3.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대한 완전매개모형과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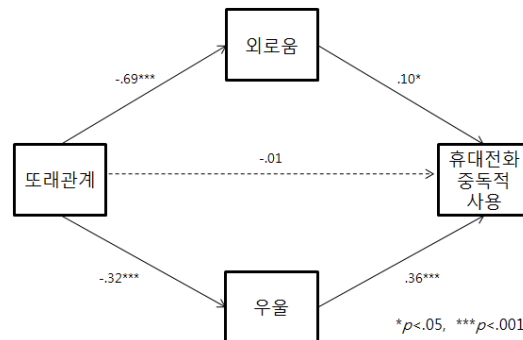


그림 4.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대한 부분매개모형과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직접경로를 추가하게 되면 간명성이 떨어지고, 모델의 설명력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완전매개모형(그림 1)이 보다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림 1과 같이 또래관계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외로움과 우울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휴대전화는 현대인의 필수매체이자 생활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실제 이용행위 및 사용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휴대전화 이용 동기를 탐색해보았다. 또한 미디어 이용 동기를 형성하는데는 심리 및 사회적 요인이 관련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정기, 2005)를 근거로, 청소년에게 중요한 요인인 또래관계 및 정서적 변인(외로움, 우울)을 함께 살펴보았다. 특히 또래관계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매개변인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와 그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 간 관련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위험 집단이 저위험 집단에 비해 휴대전화 이용 동기, 외로움, 우울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관계 변인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위험 집단이 저위험 집단보다 휴대전화 이용 동기가 모두 높고,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외로움과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또한 고위험 집단은 저위험 집단에 비해 중독의 주요한 특징인 휴대전화에 대한 병적몰입과 강박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내성과 금단이 두드러졌으며, 일상생활의 장애도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휴대전화 과다이용은 금단, 내성, 강박, 부적응 등 중독 증상을 일으켜 이용자의 사회심리학적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윤해진, 2009)와 일치하는 것이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 휴대전화가 울리는 것과 같은 금단현상을 경험하기도 하고(한주리, 허경호, 2004),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강박증세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박웅기, 2003)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휴대전화 중독 관련 연구가 많이 부족하고,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정의 또한 명확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고위험 집단이 저위험 집단에 비해 명백히 중독증상을 많이 보이고 있고, 정서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추후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정의를 보다 확고히 수립하는데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고위험 집단에서 중독적 사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은 무료함 해소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전화를 오락적인 이유로 사용하는 것이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이해경, 2008)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휴대전화를 통해 무료함을 해소하려는 것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스릴을 맛보고 소외감을 떨쳐버리려는 시도와 음주를 통해서 일상의 지루함과 고독감을 변화시켜 보려는 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김교현, 2007). 청소년기는 지루함이나 권태감을 더욱 견디기 어려운 시기이면서도 여기서 벗어날 적절한 능력이나 기술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되고 그 자극에 쉽게 몰입하게 된다(이형초, 2002).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요즘 청소년들에게 있어 휴대전화는 학습이나 오락, 친구관계 등 생활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조일주, 2009), 쉽게 몰입할 수 있는 하나의 매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휴대전화는 인터넷, 카메라,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겸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오락적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유용한 매체인 것으로 보여진다. 중독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지루함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중독적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혀냈는데 큰 의의가 있다.

셋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해 매개모형을 상정한 후, 경로분석을 통해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하지를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외로움과 우울이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완전 매개한다고 가정한 완전이중매개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의 관계에 있어 외로움과 우울이라는 부정적인 정서가 중요한 매개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는 또래관계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래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이 우울이라는 정서에 더 취약하게 되면서 휴대전화를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됨을 말해준다. 현대의 청소년에게 있어 휴대전화는 또래들과 일상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휴대전화는 이전과 달리 메신저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인터넷에서와 같이 휴대전화를 통해 가상의 대인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인터넷이 진정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주장(Turkle, 1996)과 같이 실제적인 또래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라는 매체를 통한 가상의 또래관계에 집착하거나, 내면에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될 때,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면대면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 및 치료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우울이라는 정서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한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우울이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지만(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이해경, 2008) 그 기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의 기저에 부정적인 또래관계로 인한 외로움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검증했는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내면의 외로움이 임상적으로 보다 심각한 우울 증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보다 건전한 기분전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장면에 있는 청소년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우울이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휴대전화 중독과 관련이 높은 변인으로 우울을 꼽고 있는 것을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장면에 있는 우울증 청소년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중독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최근 스마트폰이 활발히 상용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기능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의 피쳐폰과는 사용영역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용 동기도 매우 다양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먼저 휴대전화 기종(피쳐폰/스마트폰)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휴대전화 사용 용도와 이용 동기를 모두 고려하여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이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휴대전화 뿐 아니라 컴퓨터나 TV와 같이 현대 청소년들에게 밀접한 매체와의 관련성이나 차이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공통된 매체 중독 특성은 무엇인지, 각 매체들의 차별적인 특징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면 각 매체에 맞는 차별적인 치료적 개입이 가능할 것이며,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효성 (2004). 사회경제지표의 공통요인 분석에 기초한 교통사고 예측모형 개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양, 손정락 (2009). 청소년 휴대폰 중독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497-510.
- 김교현 (2002).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중독.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159-179.
- 김교현 (2007). 중독, 그 미궁을 헤쳐 나가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677-692.
- 김옥수 (1997). 한국어로 번역된 UCLA 외로움 사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조사. 대한간호학회지, 27(4), 871-879.
- 김정기(2005). 청소년과 성인집단의 휴대전화 이용 특성 비교. 한국언론학보, 49(3), 262-386.
- 김주연 (2009). 부모의 양육행동, 또래관계의 질 및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환, 진보래 (2004). 대인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의 모바일 미디어. 한국언론학회, 모바일 콘텐츠 이론 및 제작 연구발표회 발표논문.
- 김지연, 오경자(2011). 부모의 과보호가 성인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3), 647-661.
- 김진경 (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의 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심리, 사회 환경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83-393.
- 나은영 (2001). 이동전화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전화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적 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4), 189-228.
- 박선영, 도현심 (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4.
- 박순천, 백경임 (2004).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의 MMPI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2(9), 135-147.
- 박용기 (2003). 대학생들의 이동전화 중독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지, 47(2), 250-281.
- 방송위원회 (2005). 어린이 매체 중독 연구. 방송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2010).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 송은주 (2006). 고등학생의 휴대폰 사용실태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5(3), 325-333.
- 오경자, 김은정 (1998). 기혼 여성의 우울증상과 심리사회적 특성: 3개월간 추적 연구. 성곡논총, 29(3), 325-424.
- 윤두연 (2005). 청소년의 또래집단 성향이 휴대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재영 (2005). 정부의 사회복지기관평가를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개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해진 (2009).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대학생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 한국방송학보, 23(5), 173-216.

- 이은혜, 고운주 (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1.
- 이인희 (2001). 대학생 집단의 휴대전화 이용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5(3), 261-293.
- 이정기, 황상재 (2009). 10대의 휴대폰 이용 동기와 중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3(5), 296-338.
- 이해경 (2006).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및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2), 291-321.
- 이해경 (2008).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44-157.
- 이형초 (2002). 인터넷 게임중독의 진단척도 개발과 인지행동치료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형초 (2009). 중독문제 현황과 심리학자의 역할 및 준비: 인터넷 게임 중독문제 현황과 심리학자의 역할 및 준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임애라 (2008). 친애욕구가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의 중재효과.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은순 (2006).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동기와 중독의 관계.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혜진 (2002).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복자 (2009).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의 질과 휴대폰 사용행동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일주 (2009).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휴대폰 중독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1), 185-204.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청소년 이동전화 및 무선인터넷 이용실태.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승수, 오경수 (2006). 대인관계 유형과 사용경향에 따른 이동전화 중독 성향 연구. *한국방송학보*, 20(4), 371-405.
- 한주리, 허경호 (2004). 이동전화 중독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회*, 48(6), 138-165.
- Asher, S. R., & Wheeler, V. A. (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4), 500-506.
- Brennan, T. (1982). *Loneliness at adolescence*. New York: Wiley.
- Brown, B. B., Clasen, D. R., & Eicher, S. A. (1986). Perceptions of peer plea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21-530.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s Fit.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Conway, J. C., & Rubin, A. M. (1991). Psychological Predictors of Television Viewing Motivation. *Communication Research*, 18, 443-463.
- Devellis, R. (1991).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 Fischer, C. (1992). *America Calling: A Social History of the Telephone to 194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illard, P., Wale, K. & Bow, A. (1998). The Friendly phone. In Howard. S.(Eds.), *Wired-up:*

- Young People and the Electronic Media*. USC Press.
- Ha JH, Chin B, Park DH, Ryu SH & Yu J. (2008). Characteristics of Excessive Cellular Phone Use in Korean Adolescents. *Cyberpsychology & Behavior*, 11, 783-784.
- Katz, J. E. & M. Aakhus, M. A. (2002). *Perpetual Contact: Mobile Communication, Private Talk, Publ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27-241.
- Kraut, R, Kiesler, S., Boneva, B., Cummings, J., Helgeson, V., & Crawford, A. (2002). *Internet paradox revisited*. *Journal of Social Issues*, 58(1), 49-74.
- Leung, L., & Wei, R. (2000). More than just talk on the move: Uses and gratifications of the cellular phon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2), 308-320.
- Marks, I. (1990). Non-chemical(behavioral) addictions,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5, 1389-1394.
- Mesch, G. S. (2001). Social relationships and internet use among adolescents in Israel. *Social Science Quarterly*, 82(3), 329-339.
- O'Keefe, G., & Sulanowski, B. K. (1995). More than just talk: Uses, gratifications, and the telephon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2(4), 922-933.
- Peter, J. & Valkenburg, P. M. (2006). Research Note: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internet communicat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1(2), 213-226.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ettie, R. (2008). Mobile phones as network capital: facilitating connection. *Mobilities*, 3(2), 291-311.
- Routasalo, P. E., Savikko, N., Tilvis, R. S., Strandberg, T. E., & Pitkala, K. H. (2006). Social contacts and their relationship to loneliness among aged people. *Gerontology*, 52, 181-187.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L.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472-480.
- Sadava, S. W., & Thompson, M. M. (1986). Loneliness, social drinking, and vulnerability to alcohol problem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8, 133-139.
- Suler, J. (1996).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html>.
- Uruk, A. and Demir, A. (2003). The Role of Peers and Families in Predicting the Loneliness Level of Adolescents. *Journal of Psychology*, 137(2), 179-194.
- Turkle, S. (1995).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New York: Simon & Schster.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 237-244.
- Young, K. S., & Rogers, R. C.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1(1), 25-8.
- 원고접수일 : 2011. 9. 06.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1. 12. 07.
게재결정일 : 2011. 12. 28.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Cellular Phone Use Motivation, Peer Relationships, Emotional Factors and Cellular Phone Addictive Use

Ji-Young Park

Department of Clinical Psychology
Bongseng Memorial Hospital

Gui-Ae Kim

Chang-Hee 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cellular phone use motivation, peer relationships, emotional factors and cellular phone addictive use. Participants were 705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First, the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as cellular phone addictive use high-risk groups and low-risk groups, and then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ere examined through an independent samples t-test.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all variables. Seco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cellular phone addictive use high-risk groups in order to investigate what best describes cellular phone addictive u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factor that best described cellular phone addictive use was motivation to alleviate boredom. Third, based on previous studies, partial and full dual mediation models were proposed, in which loneliness and depression would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relationships and cellular phone addictive use. In order to compare two mediation models and alternative models, path analysis was used. The path analysis revealed that the full dual mediation model fit the data wel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cellular phone addictive use, cellular phone use motivation, peer relationship, loneliness, depression

부록 1.

휴대전화 이용 동기 척도의 요인별 문항과 요인계수

문항	요인계수			
	1	2	3	4
요인1. 과시적 동기				
1. 최신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84	-.08	.01	-.04
2. 사람들에게 나를 세련되게 보이기 위해서	.84	.04	.05	.07
3. 신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선망의 대상이 되므로	.83	-.01	.04	-.05
4. 남보다 비싸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81	.05	.06	.06
5. 남보다 지위가 더 높아 보이므로	.76	-.09	-.01	-.04
6.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61	-.11	-.12	-.15
7. 휴대폰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을 상징하므로	.59	.05	-.08	-.13
8.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으므로	.47	.10	.07	-.26
9. 여행이나 공연과 같은 행사에 필요한 표를 사기 위해서	.43	-.01	-.21	.10
10. 내가 사람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37	.02	-.18	-.18
11.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35	-.01	-.19	-.09
요인2. 즉시연락 동기				
1. 내가 원하는 사람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으므로	.02	.96	.08	.05
2. 내가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연락할 수 있으므로	.01	.89	.05	.09
3. 나와 친한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06	.70	.06	-.13
4. 사람들이 내게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01	.49	-.20	-.06
5. 공중전화를 찾아서 돌아다녀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07	.43	-.21	-.03
요인3. 정보습득 동기				
1.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거나 조언을 하기 위해서	-.11	-.04	-.78	-.08
2. 사람들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15	-.01	-.76	-.11
3. 하루 일과를 짜임새 있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18	-.07	-.66	.14
4. 내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얻기 위해서	.14	-.05	-.59	-.08
5.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기 위해서	.08	.05	-.58	-.07
6. 일정을 세우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06	.10	-.55	.11
7. 불필요한 외출 기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03	.04	-.46	-.22
8.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최근 소식을 알기 위해서	.03	.22	-.43	-.19
9. 신변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09	.15	-.41	-.08
10. 물건을 주문하거나 일정을 예약하기 위해서	.15	.12	-.36	.06
요인4. 무료함 해소 동기				
1. 그냥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서	-.07	.07	-.14	-.71
2. 그냥 재미 삼아서	.15	-.04	.01	-.55
3. 무료한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19	.08	-.06	-.39
4. 전화를 사용하는 자체가 흥미 있어서	.29	.13	-.04	-.35
5. 누군가와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13	.24	-.09	-.32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90	.83	.86	.75
고유치(eigen value)	9.46	3.64	1.95	1.33
전체설명변량(%)	46.70			